

보건복지 제463호 (2026-04)

ISSUE & FOCUS

발행인 신영석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T 044)287-8000 F 044)287-8052 발행일 2026. 4. 6. ISSN 2092-7117

한국의 혼인 실태와 인식 변화

김은정B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 한국의 혼인율은 장기적으로 하락해 왔으나, 2022년 이후 반등세를 보이기 시작함. 30~34세 연령층이 최근 혼인율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남.
- 남녀 초혼 연령은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 특히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크게 나타남. 사람들이 생각하는 적정 혼인 연령보다 실제 초혼 연령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비자발적 만혼일 가능성을 시사함.
- 코호트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 결혼 필요성 인식이 뚜렷하게 낮아짐.
- 비혼의 주요 원인을 조사한 결과 결혼 의향이 있으나 못 하는 이유는 '적당한 상대 부족', '주거비 마련', '(안정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는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로 나타남.
- 이에 청년의 안정적 일자리·주거 여건 개선, 만남 기회 확대, 그리고 핵심 세대인 1990년대생을 겨냥한 맞춤형 지원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01. 서론

◆ 최근 한국 사회는 극심한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음. 합계출산율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는 혼인율 저하가 지목됨(김은정 외, 2025; 이철희 2023). 한국의 저출생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혼인 감소에 대한 분석이 중요함(이소영 외, 2019; 이철희, 2018; 이철희 외, 2023).

- 이 연구는 한국의 혼인 실태와 혼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검토하고, 혼인 감소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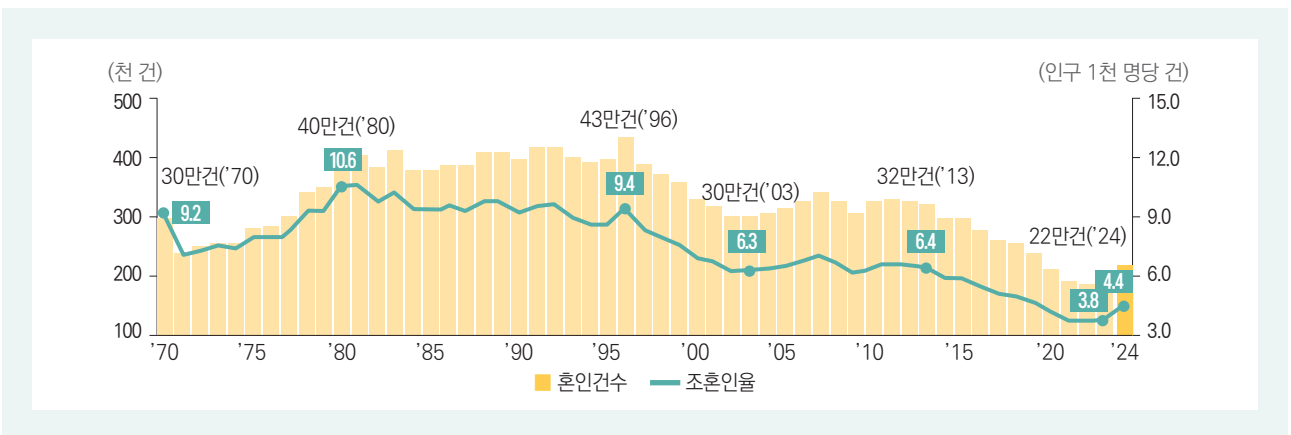
- 한국의 혼인을 및 초혼 연령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 혼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함. 또한 혼인 감소의 이유를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함.
- 이를 위해 다양한 자료¹⁾를 활용하여 분석 결과를 제시함.
 - 먼저 한국의 혼인 실태 및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데이터처 ‘인구동향조사’를 활용하여 혼인율 변화, 초혼 연령 변화 등을 살펴봄.
 - 혼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는 ‘여성가족패널자료’를 활용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인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종단적으로 살펴봄.²⁾
 - 혼인 감소 원인은 국민 인식 조사와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³⁾를 종합하여 살펴봄.

02. 한국의 혼인 실태 및 현황

◆ 2024년 한국의 혼인 건수는 22만 2000건,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은 4.4명으로 나타남. 한국의 혼인율은 하락 추세를 보이는데, 특히 2015년 이후 감소폭이 급속화됨.

- 2010~2020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2만 3000건, 혼인율은 1.0명 감소함. 2015~2020년 사이 혼인 건수는 약 8만 9000건, 혼인율은 2.0명 감소하여 증가폭이 크게 확대됨.
- 그러나 2022년(혼인 건수 19만 2000건, 조혼인율 3.7명)을 기점으로 10년 만에 혼인율이 반등하기 시작하여 2023년(19만 4000건, 3.8명)과 2024년(22만 2000건, 4.4명)까지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임(국가데이터처, 2025a).

[그림 1] 혼인 건수와 조혼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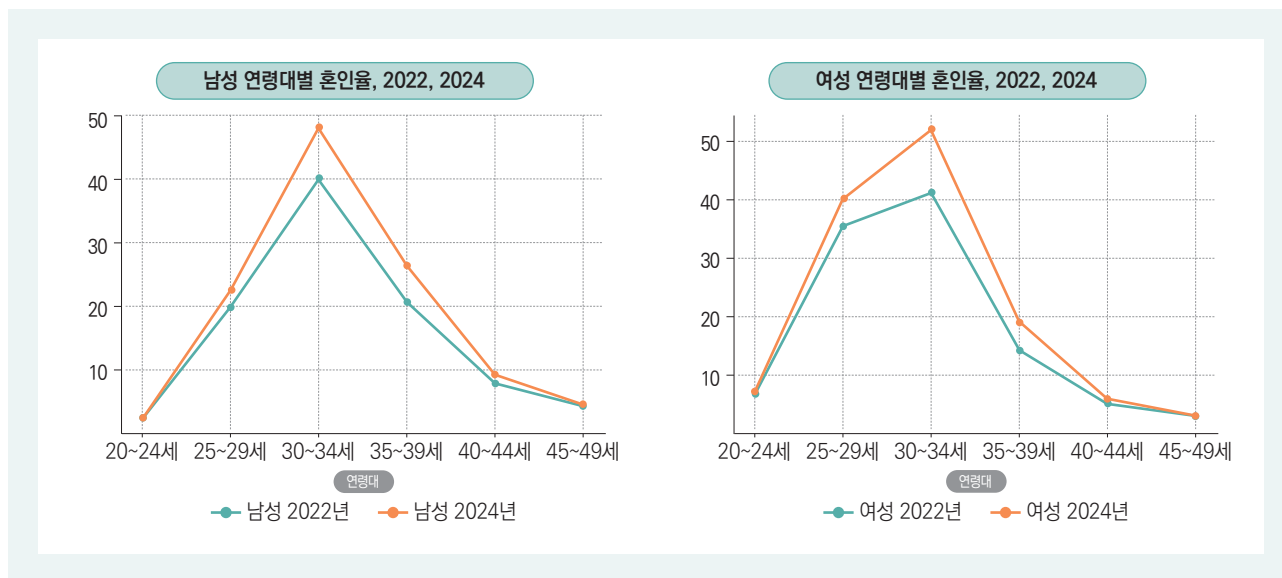


출처: “2024년 혼인·이혼통계”[보도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 3. 20., p. 1에서 인용.

1) 이 연구는 김은정. (2024. 12. 20.), 김은정 외. (2025), 조선미 외. (2024)의 연구 결과 일부 내용을 활용, 통합하여 결과를 제시함.
 2) 조선미 외. (2025)의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함.
 3) 국민 인식 조사는 김은정. (2024. 12. 20.)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전문가 델파이 조사는 김은정 외. (2025)를 바탕으로 작성함.

- 연령별 혼인율(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을 살펴본 결과 전 연령대에서 혼인율이 증가했는데, 특히 30~34세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나 최근 혼인율 반등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됨(국가데이터처, 2025b).

[그림 2] 연령대별 혼인율 변화(2022, 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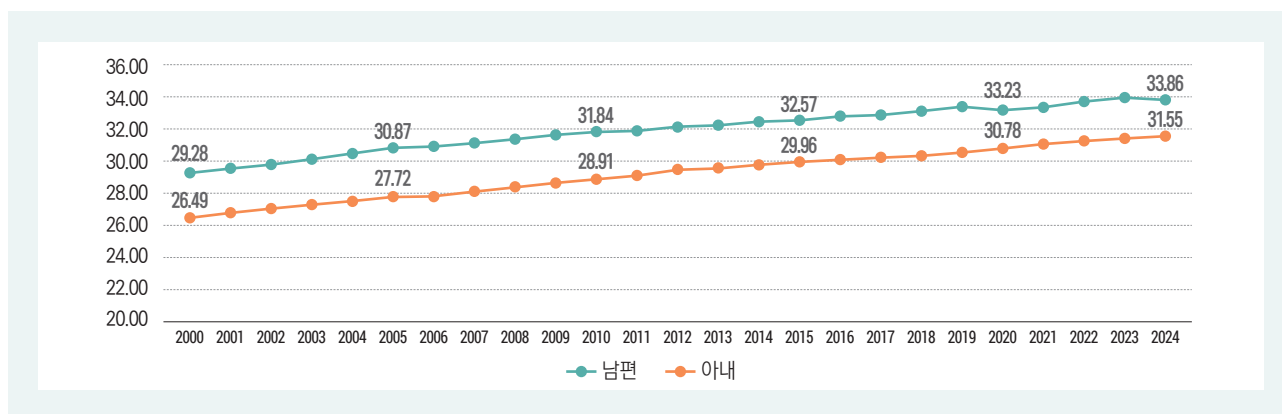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별 혼인율, 국가데이터처, 2025b.

◆ **남녀 초혼 연령을 살펴보면 남녀 모두 상승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상승폭이 더 큼.**

- 2000년 기준 여성의 평균 초혼 연령은 26.49세, 남성은 29.28세임. 2024년에는 여성 31.55세, 남성 33.86세로 각각 증가함. 같은 기간 여성은 5.06세, 남성은 4.58세 증가하여 여성의 초혼 연령 증가가 더 가파름(국가데이터처, 2025c).
- 다만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 속도는 다소 둔화되는 경향을 보임. 2000~2005년에는 여성과 남성의 초혼 연령 증가폭이 각각 1.59세, 3.03세였으나, 2015~2020년에는 각각 0.66세, 0.82세로 감소함.

[그림 3] 남녀 초혼 연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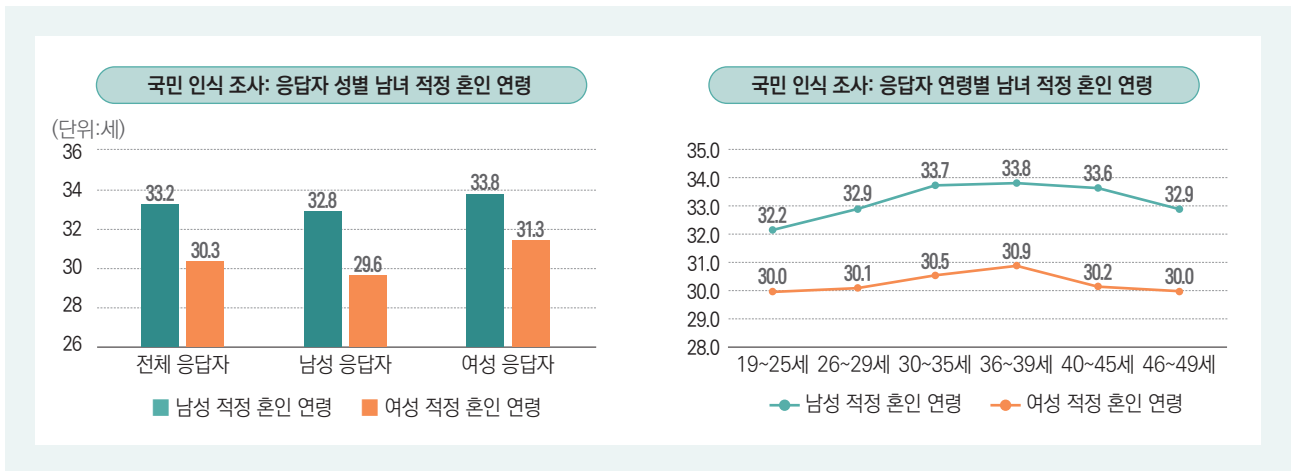


출처: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 국가데이터처, 2025c.

◆ 한편 2024년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사람들이 인식하는 적정 혼인 연령은 여성 30.3세, 남성 33.2세로 나타남(김은정, 2024. 12. 20.).

- 이는 2024년 실제 초혼 연령보다 낮은 수준인데, 여성의 경우 그 격차가 1.3세로 남성(0.7세)보다 크게 나타남. 이러한 괴리는 혼인 지연이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구조적 제약에 의한 비자발적 만혼화의 가능성임을 시사함.
- 응답자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 응답자가 남성 응답자보다 남녀 적정 혼인 연령을 모두 더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여성 응답자는 여성 적정 혼인 연령을 31.3세, 남성 적정 혼인 연령을 33.8세로 인식한 반면 남성 응답자는 각각 29.6세와 32.8세로 응답함.
- 응답자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36~39세 응답자가 적정 혼인 연령을 가장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남(남성 적정 혼인 연령 33.8세, 여성 적정 혼인 연령 30.9세). 전반적으로 응답자 연령이 증가할수록 적정 혼인 연령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거나, 40세 이상부터 감소하는 양상으로 바뀜.

[그림 4] 남녀 초혼 연령 및 국민 인식 조사 적정 혼인 연령



출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김은정, 2024. 12. 20., 제36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포럼 발표자료, p. 26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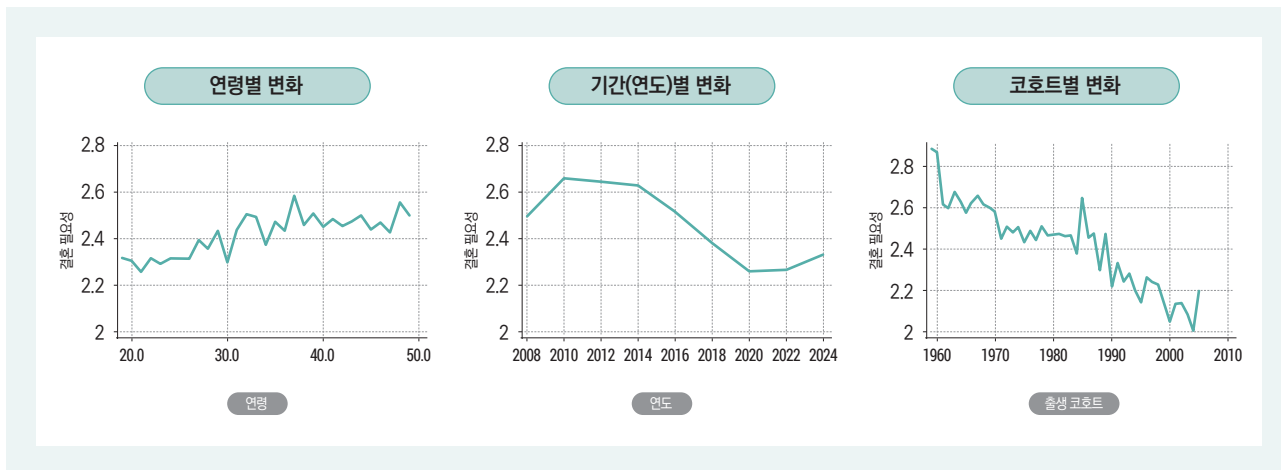
03. 혼인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

◆ 다음은 19~49세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2008~2024년 사이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봄. 가치관은 개인의 의지 및 선호를 나타내는 지표로, 여기서는 결혼에 대한 인식이 종단적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심층적으로 살펴봄.

- ① 연령에 따른 변화) 전반적으로 연령이 올라갈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경향 있으나, 주 결혼 연령대인 30대 이후에 급격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 사회적 규범 및 또래집단 영향이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작용함을 시사함.

- (② 기간에 따른 변화) 기간에 따른 변화를 살펴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급격히 하락하나, 2022년부터 반등하는 것으로 나타남. 실제 혼인율 변화와 비슷한 양상을 보임.
 - 특히 2014년 대비 2022년 하락률을 살펴보면 20대 후반~30대 초반에서 인식이 급격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주 결혼 연령기 청년층에서 하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 20~24세: 16.7%, 20~29세: 21.1%, 30~34세: 17.6%, 35~39세: 8.5%, 40~44세: 8.7%, 45~49세: 14.2% 하락
 - 2022~2024년 가치관 상승은 20~24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발견됨. 특히 25~29세 및 35~39세에서 가치관 상승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 20~24세: 0.14점 ↓, 20~29세: 0.12점 ↑, 30~34세: 0.02점 ↑, 35~39세: 0.12점 ↑, 40~44세: 0.001점 ↑, 45~49세: 0.06점 ↑
- (③ 세대에 따른 변화) 전반적으로 출생 연도가 최근일수록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음. 특히 1980년대생에서 90년대생 코호트로 넘어가면서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연히 낮아지는 모습을 보임.
 - 70년대생과 80년대생 코호트 사이 결혼 필요성에 대한 격차는 겨우 0.03점으로 두 세대가 비교적 비슷한 가치관을 공유함. 반면, 80년대생과 90년대생의 격차는 0.23점으로 크게 나타남.
 - * 60년대생 평균 2.65점, 70년대생 평균 2.49점, 80년대생 평균 2.46점, 90년대생 평균 2.23점, 00년대생 평균 2.10점(4점 척도)
 - 90년대생 코호트는 실용적 가치에 기반하여 이전 세대보다 느슨한 관계 형성, 결혼에 대해 낮은 규범적 인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함(박초롱, 2022. 9. 21.). 이러한 관점에서 90년대생 코호트는 결혼 및 출산을 필요성이 높지 않은 선택지로 인식하는 경향이 앞선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음.

[그림 5]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만 19~49세 가임기 여성 대상, 2008~202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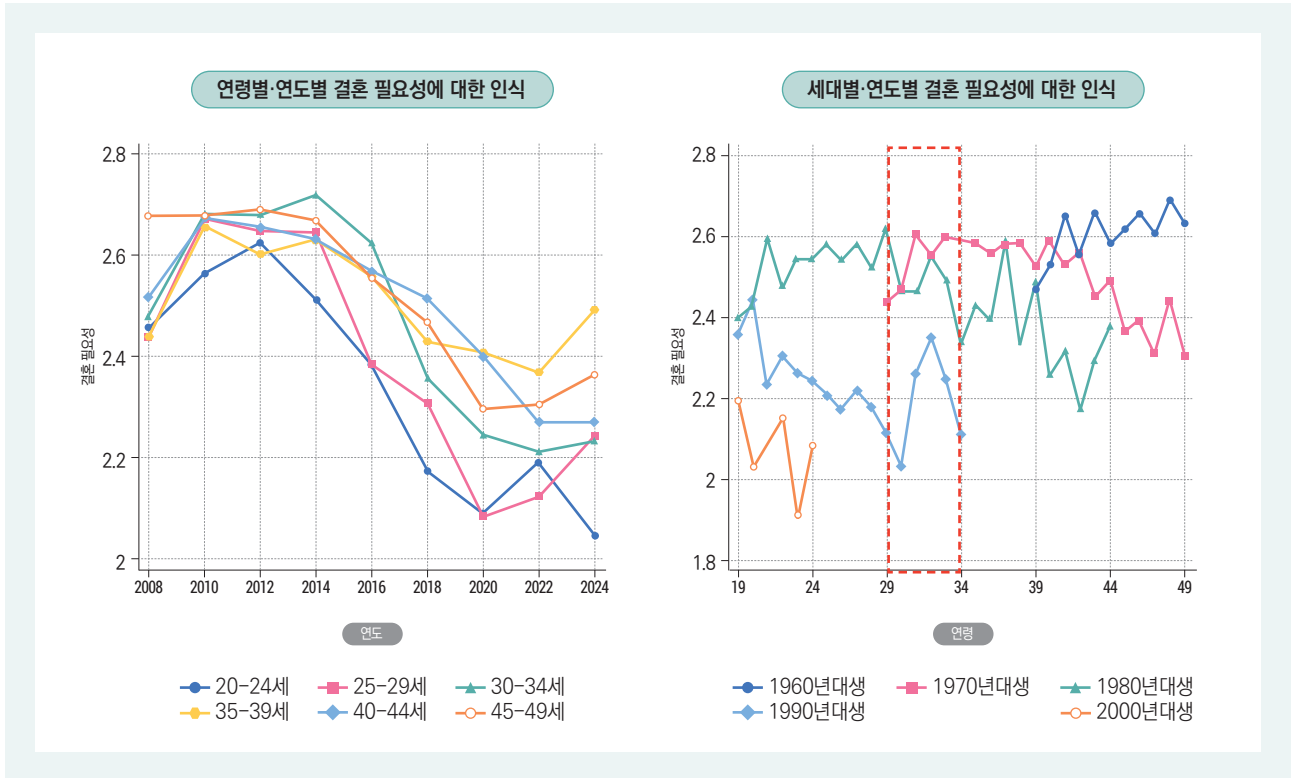


주: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2) 코호트별 변화는 해당 코호트가 19~49세 동안 인식한 결혼 필요성의 평균 점수를 의미함. 다만 49세에 도달하지 않은 코호트의 경우 2024년까지의 인식 값을 기준으로 평균을 산출함.

출처: “202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조선미 외, 2025, p. 236의 [그림 IV-2] 인용.

[그림 6] 연령별·기간별·세대별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만 19~49세 가임기 여성 대상, 2008~2024년)



주: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4점 척도: 1점=전혀 그렇지 않다~4점=매우 그렇다).

2) 빨간 박스는 주 혼인 연령을 표시함.

출처: “202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조선미 외, 2025, p. 237의 [그림 IV-3]과 p. 239의 [그림 IV-4] 인용.

04. 만혼 및 비혼의 원인

◆ 다음은 국민 인식 조사 그리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한국의 만혼 및 비혼의 원인을 살펴봄.

◆ 먼저 국민 인식 조사⁴⁾를 한 결과임. 무배우자(미혼, 이혼, 사별 포함)를 대상으로 (1) 향후 결혼 의향, (2) 결혼 의향이 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3)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를 조사함.

- (향후 결혼 의향) 47.3%가 “있다”, 27.6%가 “없다”, 25.1%가 “모르겠다”고 응답함.
 - 집단별로는 여성(32.8%), 40대 중후반(41.0%), 농어촌(31.3%), 고졸 이하(32.9%), 임시직·일용직(31.4%), 1분위 저소득 가구(32.2%)일 경우 상대적으로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음.

4) 2024년 전국 만 19~49세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 그중 무배우자는 1251명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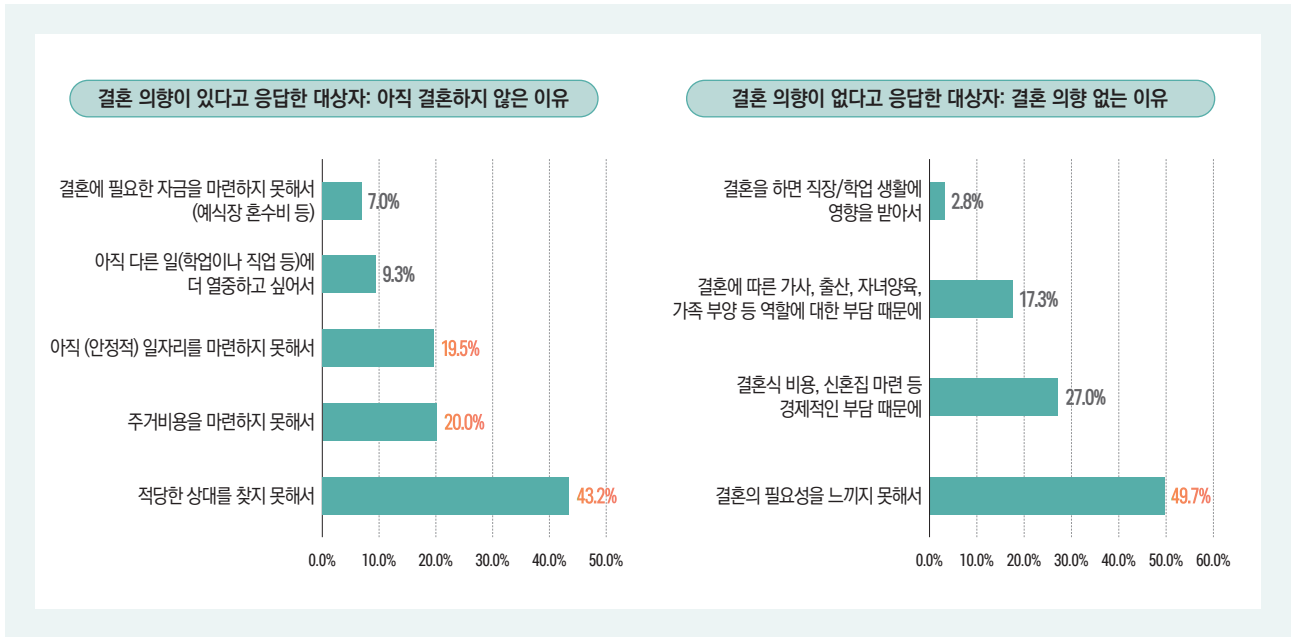
〈표 1〉 국민 인식 조사: 무배우자(미혼, 이혼, 사별 포함) 대상 향후 결혼 의향

구분		예, 언젠가는 하고 싶다	아니요, 나중에도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잘 모르겠다	계
전체		47.3	27.6	25.1	1,251
성별	남성	55.2	23.0	21.8	665
	여성	38.3	32.8	28.9	587
연령	19~25세	58.5	23.7	17.8	253
	26~29세	51.6	24.6	23.8	346
	30~35세	44.7	24.1	31.2	258
	36~39세	42.3	31.5	26.3	127
	40~45세	35.3	35.0	29.8	193
	46~49세	37.7	41.0	21.3	74
지역	대도시	48.3	25.4	26.3	634
	중소도시	47.2	29.4	23.4	485
	농어촌	42.8	31.3	25.9	133
학력	고졸 이하	43.0	32.9	24.0	293
	전문대졸	43.3	28.3	28.4	195
	대졸	50.1	25.8	24.0	684
	대학원 이상	48.0	21.2	30.8	79
종사상 지위	상용직	51.6	24.1	24.3	676
	임시직 및 일용직	50.4	31.4	18.2	198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3.8	18.7	37.5	38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44.3	20.6	35.1	20
	무급가족종사자	29.7	43.3	27.0	10
총가구 소득	1분위	38.5	32.2	29.3	354
	2분위	46.2	28.2	25.6	317
	3분위	46.2	28.9	25.0	254
	4분위	60.9	21.0	18.1	166
	5분위	56.3	21.0	22.6	161

출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김은정, 2024. 12. 20., 제36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포럼 발표자료, p. 26에서 인용.

- (결혼 의향이 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물은 결과 43.2%가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 20.0%가 “주거비용을 마련하지 못해서”, 19.5%가 “아직 (안정적) 일자리를 마련하지 못해서”, 9.3%가 “아직 다른 일(학업이나 직업 등)에 더 열중하고 싶어서”라고 응답함.
-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 무배우자 중 결혼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에게 이유를 물은 결과 49.7%가 “결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27.0%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17.3%가 “결혼에 따른 가사, 출산, 자녀 양육, 가족 부양 등 역할에 대한 부담 때문에”, 2.8%가 “결혼을 하면 직장·학업 생활에 영향을 받아서”라고 응답함.
- 즉 결혼 의향이 있는 경우 아직 상대를 찾지 못한 것과 주거비용 및 안정적 일자리·소득 제약이 큼. 결혼 의향이 없는 경우 가치관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7]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와 결혼 의향 없는 이유



출처: “혼인, 출산, 가족 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김은정, 2024. 12. 20., 제36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 포럼 발표자료, p. 27의 내용을 인용하여 그림으로 재구성.

◆ 다음은 전문가를 대상⁵⁾으로 혼인 감소의 원인과 구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 조사함.

-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1순위로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을 지목하였으며, 2순위로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3순위로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꼽음.
 - 메커니즘을 심층 조사한 결과 1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⁶⁾의 경우 한국은 ‘학업→일자리→혼인→출산’으로 이어지는 순차적 이행 경로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적 특성이 강함.
 - 노동시장 이중구조화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까지의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혼인을 지연 및 포기하는 현상이 심화됨. 실제로 2025년 기준 졸업 후 첫 취업까지 평균 11.3개월이 소요되며, 대학 졸업자의 경우에도 8.8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임 (김혜지, 2025. 7. 25.).
 -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이중구조화가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단계에서 결혼·출산 기회비용을 증가시키며, 이 시기에 결혼·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이 발생할 경우 이후 노동시장 복귀 및 경력 회복이 어려운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 지적함.
 - 과거에는 배우자의 안정적 일자리 조건이 주로 남성에게 요구되었다면, 맞벌이 부부 확산으로 최근에는 이 조건이 여성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혼인 상대 선택 과정에서 ‘안정적 일자리’의 중요성이 전반적으로 강화된 것으로 나타남.

5) 2025년 9월 인구 분야 관련 전문가 19명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한 결과임.

6) 지면 한계상 이 글에서는 1순위 “노동시장 이중구조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에 대해서만 다룸. 그 외 순위 관련해서는 김은정 외. (2025)를 참고하기 바람.

〈표 2〉 전문가 조사: 혼인 감소 요인(10점 척도)

(단위: 점)

요인	평균
1.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및 좋은 일자리의 부족(청년층 취업·취직의 어려움, 불안정 고용 증가 등)	8.26
2. 주택 가격 상승 및 주거비 부담 가중	8.11
3. 혼인에 대한 가치관 변화(혼인의 필수성 인식 약화 및 동거 수용 증가 등)	7.53
4.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육아휴직 사용 제약 및 경력 복귀 어려움, 장시간 근로 등)	7.16
5. 여성에게 불평등한 가사·돌봄 노동 부담(여성의 독박 육아 등)	7.00
6. 경력 커리어 구축을 우선시하는 성향 강화	6.84
7. 노동시장에서의 혼인·출산에 따른 성차별, 경력 단절 위험(성별 임금 격차, 채용·승진 시 차별 등)	6.79
8. 수도권 집중화 현상(청년층의 수도권 유입 강화로 인한 지방 성비 불균형 등)	6.63
9.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증가(경제 불안 등)	6.58
10. 고학력화(대학원 진입 등 교육 수준 증가)	5.89
11. 결혼비용 부담(예식장, 혼수비 등)	5.05

주: 1점(전혀 영향 없음)~10점(매우 큰 영향).

출처: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김은정 외, 202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 105에서 재인용.

05. 시사점과 정책 제언

◆ 이 글에서는 혼인 실태와 가치관, 혼인 감소의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과 정책적 제언을 도출함.

- 첫째, 결혼 의향이 있음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이유로 ‘적당한 상대를 찾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43.2%로 가장 높게 나타남. 이는 표면적으로는 개인의 선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만남의 기회 축소, 결혼을 둘러싼 사회·경제적 조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조성호(2014, 2018)의 연구에 따르면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 수준이나 대기업 근무 여부 등 경제적 자원이 이성 교제 가능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성에게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노동시장 불안정성 및 소득 격차는 관계 형성 기회 제약 및 결혼 미스매치를 심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계봉오 외, 2021).
 - 즉 ‘적당한 상대 부족’ 문제는 개인의 선택이나 인식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 형성 기회와 결혼 가능 조건이 제약된 구조적 문제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정책 역시 단순한 결혼 장려를 넘어 만남 기회 확대와 결혼 가능 조건 완화를 병행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둘째, 주거와 일자리 불안정성 또한 혼인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 청년층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소득 불확실성은 결혼 결정의 전제 조건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안정적인 일자리 접근 기회를 제한함으로써 혼인 이행을 지연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높은 주택 가격과 주거비 부담은 결혼 및 가구 형성을 위한 경제적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따라서 청년층의 혼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 양질의 일자리 확대,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병행될 필요가 있음.
- 셋째, 결혼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 변화를 살펴보면 1970년대 및 1980년대 출생 코호트는 비교적 유사한 인식 수준을 보이는 반면, 1990년대 출생 코호트에서는 결혼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뚜렷하게 낮아지는 양상이 나타남. 이는 세대 간 가치관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며, 세대별 맞춤형 정책 접근의 필요성을 시사함.
 - 특히 1990년대 초반(1990~1994년) 출생 코호트는 약 70만 명 내외 규모로, 1980년대 후반 출생 코호트(약 60만 명), 2000년대 출생 코호트(약 40만~60만 명)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세대로서 정책적으로 중요한 대상 집단에 해당함(강우량, 2025. 3. 26.).
 - 이들은 최근 혼인율 반등 흐름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는 핵심 세대임. 2026년 기준 만 26~35세로 혼인이 집중되는 연령대에 해당함.
 - 해당 세대를 대상으로 한 정책은 혼인·출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주거·고용·가족형성 지원을 포괄하는 집중적이고 전략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함.

참고문헌

- 강우량. (2025. 3. 26.). 1월 출생아 11.6% 역대 최대폭 증가...‘제2 에고폼’ 90년대생 효과. **조선경제**. https://www.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5/03/26/SX4KMSU57RBXHFLFSVGW27KNRE/
- 계봉오, 고원태, 김영미. (2021). 여성의 고학력화와 결혼시장 미스매치 가설에 대한 비판적 검토, 1990-2015. **한국조사연구학회**, 22(1), 61-89.
- 국가데이터처. (2025a). ‘인구동향조사’ 혼인건수, 조혼인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INH_1B8000F_03&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5b). ‘인구동향조사’ 시도/성/연령별 혼인율[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15&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5c). ‘인구동향조사’ 시도별 평균 초혼 연령[데이터 세트].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B83A05&conn_path=I2
- 국가데이터처. (2025. 3. 20.). **2024년 혼인·이혼통계**[보도자료].
- 김은정. (2024. 12. 20.). **혼인, 출산, 가족형성에 대한 국민인식과 가치관**. 제36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포럼, 서울, 대한민국.
- 김은정, 이지혜, 김은지, 조선미. (2025). **인구동태 및 합계출산율 변화 분석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혜지. (2025. 7. 25.). 대졸 후 취업까지 8.8개월...역대 최장, 3년 이상 청년백수 23만명...사상 최다. **국민일보**.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3344793>
- 박초롱. (2022. 9. 21.). 임팩트 커뮤니티를 말하다...80은 “뭉쳐야 산다” 90은 “실용적 연대”. **이로운넷**. <https://www.eroun.net/newsarticle View.html?idxno=29680>
- 이소영, 장인수, 이삼식, 이철희, 신손문, 신성호, 박현경, 손인숙, 손호성, 오수영, 최용성. (2019). **출생 및 인구 규모 감소와 미래 사회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년~2016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 이철희. (2023). 1992~2021년 한국 출생아 수 변화 요인 분해: 여성인구, 결혼, 자녀 수별 유배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46(3), 79-110.
- 이철희, 김정호, 이소영, 민규량. (2023). **저출산 정책 평가 및 핵심과제 선정 연구**. 저출산·고령사회연구위원회.
- 조선미, 이다경, 이서현, 이진숙, 박송이, 김은정, 이은아, 손창균. (2025). **2025년 여성가족패널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조성호. (2014). 최근 미혼 인구의 특성과 동향: 이성교제를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213, 14-23.
- 조성호. (2018).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이성교제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보건사회연구**, 38(4), 398-430.

집필 김은정B (인구정책연구실 부연구위원) 문의: 044-287-8386